

투데이 칼럼

사본축말(舍本逐末)하지 않기를

**무**술년(戊戌年) 새 해가 밝았다 싶더니 벌써 석 달이 훌쩍 지나갔다.

한가롭던 틈틈이 농사꾼이 모이기 시작하니 바야흐로 봄인가 싶다.

중국 역사책 '한서(漢書)'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한나라 문제(文帝)는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궐 안에 밭을 만들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으로 백성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백성이 근본에 힘쓰지 않고 말단을 일삼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다. 짐은 이를 격정하여 직접 싣하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권장하노라"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사본축말(舍本逐末)이다.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근본은 농업을, 말단은



김기원

장수군 건설경제과장

은 상업을 의미한다.

농업을 도외시키고 상업에 몰두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는 본말전도의 태도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고사성어의 유래와는 반대로 언제부터인가 우리네는 근본을 잊고 말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고귀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던 농업이 등한시 되고 농업인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한다.

고령화된 농민들은 해가 갈수록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장수군에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다.

농사일을 재촉하는 봄비에도 일손에 잡히지 않는 농가들이 있다.

바로 습답불량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들이다.

장수군에서는 2015년부터 배수개선이 필요한 담면적을 조사하여 습답불량농지 291ha(전체 면적대비 73%)에 대하여 습답불량농지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개년 동안 31억원을 투자하여 653필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에도 15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93필지에 혜택을 돌아갔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작물 생산에 있어 기계화 영농은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배수불량 농지를 가진 농가들은 영농장비 활용이 어렵고 작물 생육에도 지장이 있어 작물 재배에 애를 먹던 처지였다.

가뜩이나 일손 부족으로 농업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가에 습답불량농지개선사업은 단비 같은 소식일 터다.

농업을 근본으로 여기고 상업을 말단으로 여기던 중국 한나라 시대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성 없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본을 묵묵히 따르며 오늘도 땅을 일구는 우리농민들에게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 모두 사본축말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독자제언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예방하자

발표한 '2017 교통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했다.

해마다 노인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대부분은 집, 경로당이나 마을 등지에서 길을 건너다가 당한 사고였다.

2008년도에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 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이 지정되어 있다.

실버존에서는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노면을 빨간색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한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나고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30km/h이내이며 특정시간과 구간별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반응 시간이 30%정도 더 오래 걸리고 위험인지 능력도 저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20세 청년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실버존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모두 서행 운전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하겠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100세 시대와 맞물려 웰빙이 유행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처럼 건강과 환경의 이점을 가진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5년간(2010~2014년) 3,16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22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3,146명에 달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이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속통행을 하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는 것이다.

둘째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도로 다니지 않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보도

로 주행을 해야 한다면 과속에 주의하여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서 보행자들과 자동차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넷째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넌다.

다섯째 ▲안전장구의 착용이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70% 가량이 머리부상인 만큼 안전모의 착용은 필수이며 팔꿈치와 무릎을 보호하는 장구의 착용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전거, 이제는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타도록 하자.

이동민 고창경찰서 모암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군산 살리기 전력투구 해야

군산 GM의 완전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더 몸부림 쳐야 한다. 이같은 주문은 제네럴모터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해서이다. 지금 제네럴 모터스 측은 폐쇄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매우 화나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도 못 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완전 폐업이 코앞인데 국회는 나 몰라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개절 휴업 상태로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전북도는 군산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 전력투구는 구체적인 움직임이어야 마땅하다. 거짓 희망에 속아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곤란하다. 그것은 오히려 울분만 키우는 독소가 된다. 지금 군산 GM의 폐쇄로 협력사들이 연쇄부도로 쓰러지는 판이다. 현실이 이렇데 전북도가 지방선거 때라며만데 정신을 팔면 안 된다. 군산 경제가 완전히 죽는 다음에야 나서면 무슨 소용

이 있는가.

전북도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지금 군산의 몰락 때문에 전북 경제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간 힘을 써야 한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GM의 폐쇄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전북도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의 추세를 보며 행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 군산 살리기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명토박는 것은 그래서이다.

전북도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민에게 말이 있어야 했다. 현재 긴급 지원용으로 약속된 7백억 원대의 군산 추경안이 여야 정쟁으로 포류 상태이다.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라며 비켜가려고 해서 는 안 된다. 장담컨대 전북도는 펼쳐 일어나야 한다. 전북도는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더욱 몸부림 쳐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발전 사업에 시선 집중

미래를 약속한 사업들에 시선을 집중해야겠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한다. 이 말은 전북도에겐만 하는 말이 아니다. 요즘 말투들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는데 팔불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이같은 주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저번에 여야가 SOC 문제를 두고서 서로 네 탓 공방을 했었는데 도민들은 그걸 불쌍 사납게 여겼다. 지역 발전에 시선을 집중해주기를 한 두 번 당부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면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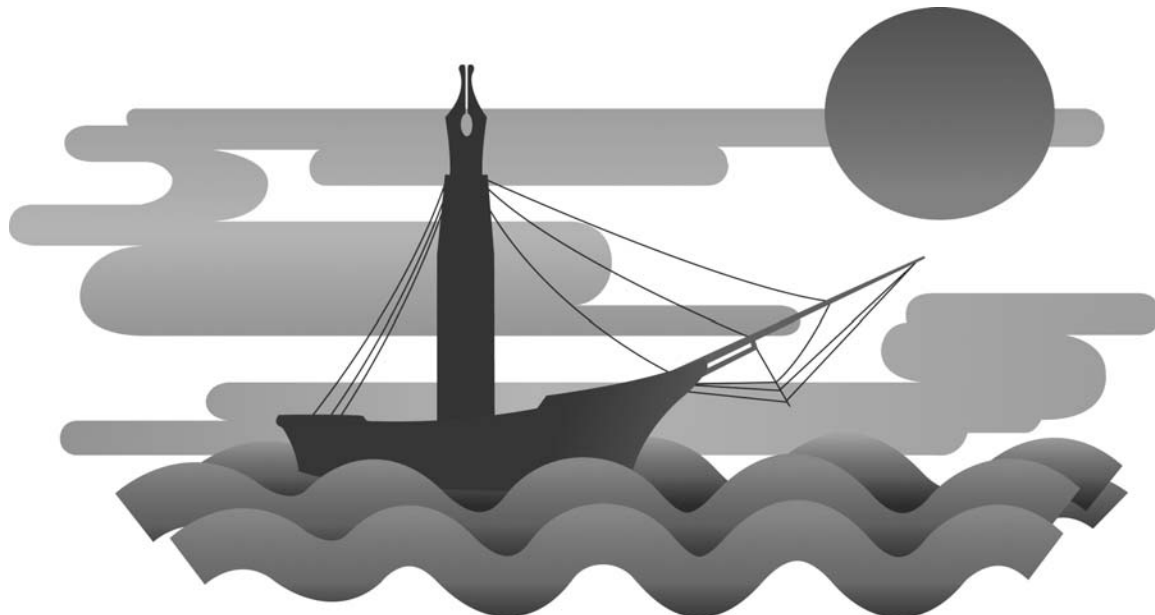
전북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전북도가 군산 문제와 관련해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국회의 반응은 이쪽과 다르다.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필립 뛰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이 먼저이다. 현재 4월 임시 국회 중이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군산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안이 찬밥 신세이다. 화급한 것도 그러니 다른 것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그래서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 SOC 분야가 그렇고, 산업 분야가 그렇고, 농업 분야가 그렇다. 한결같이 우리 전

북 지역의 미래를 말하는 것들인데 열려가 된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도시사를 비롯해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잘 생각해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이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참한 각오를 다져야 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다들 생각해볼 일이다. 세만금사업 말고는 고만고판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를 비롯해 다른 SOC 확충에 힘내야 한다. 그리고 산업 분야 활성화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저번에 공표했던 탄소산업 구상도 잊지 말아야 했다. 2020년까지 1,366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 모든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 함께 끝까지 부단한 행보가 있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